회개는 돌싱녀의 재혼이다

(예레미야 3:1~25)

1.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므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 네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 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3.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4.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5.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회개는 돌싱녀의 재혼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회개는 돌싱녀의 재혼이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과 태도가 있습니다.
주변의 교인이 어려움이나 환란을 당하게 되면 '회개하라'는 말을 합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 회개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생각과 말은 성경적으로는 맞는 것일까요?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려움과 환란이 주어지면 회개해야 합니다.
문제는 회개(悔改)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환란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회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의 문제나 병처럼 여겨서 극복하는 수단으로 회개를 할 것인지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업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회개를 합니다. 혹은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합니다. 남편이 늘 말썽입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

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마치 병을 고치려고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약은 건강할 때에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약처럼 취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제일 좋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활 속에서 발생한 환란과 어려움을 병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병을 고치기 위한 약으로 생각하며 회개를 한다면 이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상황을 제일 좋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가 제일 이상적인 상태임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삶에서 주어지는 어려움과 환란은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마음의 이혼을 촉구하시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치병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나 과제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마음으로 결혼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신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라면 마음은 항상 기쁘고 쉬지 않는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기 때문에 늘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함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결혼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대상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신호가 삶의 어려움과 환란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환란과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은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누구와 결혼했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마음의 결합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결합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결합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삶의 어려움과 환란은 어느덧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의 대상이 문제입니다. 몸은 싱글이 있지만 마음이 싱글인 사람은 없습니다. 세간에 '돌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돌아온 싱글로써 이혼한 여자나 남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몸은 돌싱일 수 있지만 마음은 돌싱일 수 없습니다.
마음은 반드시 신과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섭니다. 신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종교의 대상으로 초자연적 위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화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신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말에서 '다른 신'은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주리라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혹은 내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해주리라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이러한 대상은 마음에서 제일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것만 이루

어지면 불평할 것이 없다고 믿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신과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은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은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이러한 신과의 결혼은 남자든 여자든 젊었든 늙었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마음이 결혼하는 신을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인 성 과부가 마음으로 결혼 한 신은 독자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결혼한 신은 재산이었습니다. 나인 성 과부는 아들이 죽자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을 잃었고, 부자 청년은 재산을 통해서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대상은 돈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율법은 돈과의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한 탁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삶의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마음의 남편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참 회개는 기존에 남편으로 여겼던 신과의 이혼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생활 속의 환란과 회개의 관계를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어떤 대상과의 결혼한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단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가뭄이 임합니다. 가뭄이라는 환란이 닥칠 때마다 선민들은 으레 회개를 했습니다.
4절을 보면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라고 하나님을 불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라는 말은 출애굽 당시의 광야생활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사십년간 250만 명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왜 가뭄을 주시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만 마음의 관계에서는 남편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세상과 결혼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한 채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이러한 행태를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이 회개는 진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회개의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짜 회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회개를 말하고 있어도

맥락이 좀 다릅니다.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곧 마음의 이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이혼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시아버지나 장인어른쯤으로 생각해서 무조건적인 호의를 바라는 회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선민들에게 가뭄은 불필요한 병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뭄이라는 병을 고쳐주는 약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선민들이 하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를 제일 좋은 상태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회개가 음란과 행악으로 비유되면서 '돌아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배우자를 배신하고 밖에 나가 외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짝을 이룬 남자를 집안에까지 데리고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내가 새 사람과 잘 살 수 있도록 당신은 이제 내 보호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과의 이혼이 없는 회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본문의 예언을 통해 선민들의 가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알레르기 반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긴 하는데 거짓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목사님께 가서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목사님의 말을 따라서 회개 기도를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해줘야 하는 말은 마음이 사업과 결혼했기에 사업이 안 풀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고 계신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안 풀리는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이혼하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병이 걸린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병 고침이 아닙니다. 병은 건강과 결혼한 마음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건강과 이혼하고 하나님과 결혼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다른 신의 모습입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건강이 좋으면 기쁘고 만족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기쁠 것 같고, 승진해야 기쁠 것 같고, 취직이 잘 되어야 기쁠 수 있으리라 여기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세상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환란을 통해 신호를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빨리 세상과 이혼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게 헌금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위해서 헌금은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헌금해서 재산이 줄어

들까봐 벌벌 떨지 마세요. 우선 마음에서 재산과 결혼한 마음을 이혼시켜야만 합니다. 마음이 재산과 이혼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재산이 없어지는 것 아니니 겁내지 마세요. 이단들은 오히려 재산을 요구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서 돈과 이혼하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결혼하고 나면 돈에 대한 시선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돈도 사용하면 됩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쓰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세요. 그러나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건강과 이혼하는 것입니다.
몸이 있기에 돈을 대하고 자녀도 대합니다. 몸은 곧 세상과 마음을 잇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권력이나 명예도 몸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몸에 병이 나는 것을 큰 문제로 여깁니다. 그럴 때에 순리대로 병원도 가고 상담도 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신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몸을 의사에게 맡기기에 앞서서 마음이 건강과 이혼하고 하나님과의 결합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부는 각자가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타락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마음으로 서로를 배우자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이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마음의 남편을 세상 것들로 바꾸었습니다. 자연히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혼을 위해서는 정식으로 합법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음의 이혼을 위한 합법적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련이나 철학적 가르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마음의 이혼은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돈과 결혼한 사람이라면 오직 십자가에서 돈과 결혼한 마음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결혼한 상태를 죽은 것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과의 합법적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이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과의 결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결합할 때에 마음에는 기쁨과 만족이 생겨납니다. 삶과 생활은 이 기쁨을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의 합법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결혼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이 생활화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마음은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결합하려는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듯이 생활화할 때에 하나님과의 결합 상태도 유지됩니다. 이럴 때에 마음은 항상 기뻐집니다. 하나님을 제일 크게 보고 있기에 쉬지 않는 기도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선민들에게 참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돈이라는 남편, 건강이라는 남편, 자녀의 형통이라는 남편, 승진이라는 남편을 하나님 앞에까지 데려와서 이것들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보호자나 아버지의 개념에 묶어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거짓 회개를 하는 동안에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삶에 어려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인들 중에서도 어려움 없이 삶이 잘 풀리기만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 말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는 결혼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계신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상대로 생각하지 않으시기에 그들이 가짜 회개를 해도 상관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일수록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신호를 주시기에 삶에 어려움과 환란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어려움과 환란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확률’이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성도들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100%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이 지속될수록 어려움과 환란은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세상에 대한 이혼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환란이나 어려움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행여나 어려움과 환란이 주어지더라도 더는 예전처럼 괴롭지 않습니다. 백수 천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허락하신 과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달픈 회개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이 합법적으로 세상과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일체되신 것처럼, 비유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과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남편 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에서 세상과의 이혼이 말끔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더는 세상의 어떤 존재도 남편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부부되어 기쁨과 만족을 출발점으로 삼는 복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